

병 고침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신앙이 존재해야 함을 가르쳤다.

“신앙은 하늘 권능으로 치유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물론경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이더서 12:12)[또한 니파이전서 7:12; 교리와 성약 35:9 참조]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병자 축복에 관해 하신 유명한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과 그 가족은 종종 의식을 집행하는 형제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는 병 고침의 은사나 신권 권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의식이 있고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지닌 신앙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22]라는 말씀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주님께서 너무나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김볼 회장이 병자 축복을 강조하심”, 성도의 빛, 1982년 8월호, 41쪽] (“병 고침”,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9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을 지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상기시키셨다.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신앙에 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신앙과 신권의 병 고치는 권능이 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야 한다는 계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 강조체 추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면] ……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교리와 성약 46:30) [또한 요한1서 5:14; 힐라맨서 10:5 참조]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행사하는 주님의 종이 병 고침을 받을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신권 축복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낮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바로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신앙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십대 딸 아이의 장례식에서 제 사촌 동생이 했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아이는 의학적으로 훌륭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권 축복도 받았습니. 성전 기도자 명부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에게 큰 신앙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 아이를 지금 본향으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신앙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십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훌륭한 소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뿐,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참되다는 점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병 고침”,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0쪽)

